

# 광주FC “믿음주고 사랑받는 구단” 새 출발 다짐

노동일 새 대표 취임·비전 선포  
경영방식 개선 등 4대 전략 추진  
업무효율성 제고 조직개편 단행  
선수단 “실력으로 검증 받을 것”



올시즌 K리그1(1부리그)에 복귀하는 시민프로 축구단 광주FC가 신입 대표이사를 맞이하며 새 비전을 선포하고 경영 개선과 조직 정비 등 전면적인 구단 혁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광주FC는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노동일 신입 대표이사 취임식과 2030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시민에게 믿음주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광주FC’라는 새 비전을 발표했다.

광주는 새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전략을 추진한다. 4대 전략은 △일원화된 조직 체계와 성과 중심의 직원평가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 △선수단 재량 확대와 기업 후원 유치를 위한 구단 경영방식 개선 △선수단의 지역밀착활동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상생 추구 △승패와 상관없이 즐기는 축구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연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기회와 성장의 유소년 축구 등이다.

광주FC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기존 1처 1부 3팀 체

제를 2본부 3팀 1지원단 1발전추진단(TF) 체제로 개편한다.

이원화된 지휘체제였던 사무처장과 경영본부장을 통폐합해 경영본부장으로 일원화한다. 선수단 전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전략본부장과 관람객 유치 강화를 위한 경기관리지원단이 신설된다. 조직 운영 지원을 위한 한시조직인 발전추진단도 구성된다.

또 구단 운영에 대한 이사회와 감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선수 영입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수단 운영위원회에 이사, 변호사, 스카우트 등을 포함시켜 선수 검증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U-15, U-18 우수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소년 총괄디렉터 운영을 통해 연령별 체계적 훈련과 성장을 관리한다.

이밖에 비시즌재능기부 축구교실과 취미반 운영, 가족동반 축구행사 등 ‘즐거는 축구’에도 주력한다.

이 같은 추진전략은 지난 11월 노동일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창단 이후 처음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경영평가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회계법인에서 진행,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구단은 향후 전략별 과제를 세분화해 추진하고 경영혁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노동일 신입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광주FC는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적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 이정호 감독, 선수단 등이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광주FC 대표이사 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시민에게 믿음주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광주FC’ 새 비전 달성을 다짐했다.

로 광주시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줬다”며 “2023년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조직을 정비하고 차별화된 경영으로 시민들에게 믿음 주는 구단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비전의 최종 목표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지속가능한 구단 운영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선수단은 화끈한 경기로, 프런트는 적극적인 후원 유치로, 확 달라진 광주FC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광주FC 이정호 감독과 선수들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되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정호 감독은 “저는 경기장에서 광주

시민과 팬들을 위해서 실력으로 검증받는 사람이다.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주장 안영규도 “우리 선수단은 구단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것이고 항상 비전에 맞춰 열정과 감동을 주는 축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는 축구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광주FC가 시민들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선수들이 앞장서서 노력할테니 올시즌 많은 응원과 기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단주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FC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겠지만, 우승 이전에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며 “시민구단인 광주FC가 공동체의 단합과 기회·성장의 광주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광주FC는 지난 시즌 역대급 경기력을 선보이며 40경기에서 25승 11무 4패, 승점 86으로 K리그2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강등 한 시즌 만에 승격에 성공했다.

팀 창단 2번째 우승과 함께 K리그2 역대 최단 기간 우승(4경기)은 물론 한 시즌 최다 승(25승)과 승점(86점), K리그 2 시도민구단 홈 최다연승(10연승), 홈 경기 전 구단 상대 승리, 구단 최다 연속 득점(16경기) 등의 습한 기록도 양산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 광주 서구청 女펜싱 강영미 ‘금빛 찰르기’

종목별오픈선수권 에베 결승서  
전남도청 女에베 단체전 준우승



결승에 올랐다. 강영미는 결승에서 만난 석태영을 상대로 점수를 따내며 주도권을 쥐고 마지막까지 리드를 유지한 끝에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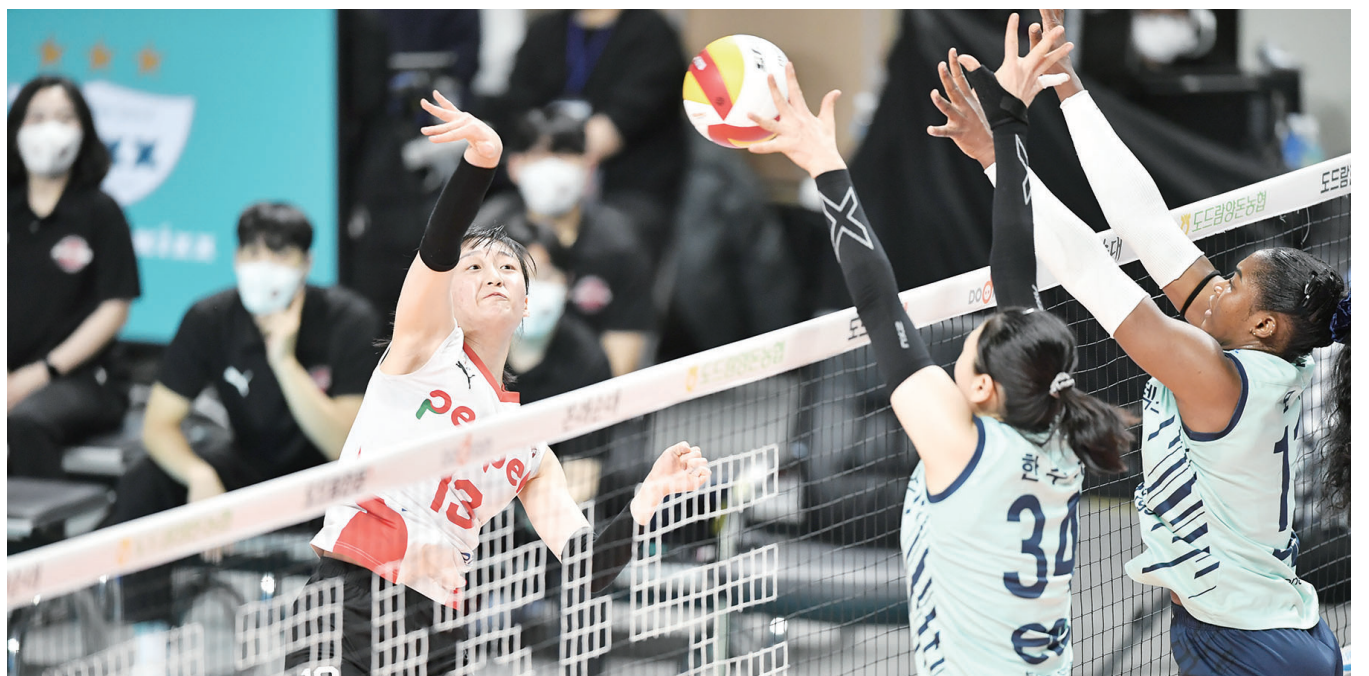
차로 물리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강영미는 이번 금메달로 2024년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 32점을 획득, 내년 파리 올림픽 출전에 청신호를 밝혔다.

전남도청은 이번 대회 여자 에베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유진실·김향은·박소형·김시은으로 구성된 전남도청은 대회 여자 에베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시청(송세라·송세희·박진주·김가은)에 37-45로 져 은메달에 만족했다. 박소형은 여자 에베 개인전 준결승서 강영미에게 10-11로 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해남군청은 남자 에베 단체전 동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동환 기자



시페퍼스, 3연패 수령 시페퍼스 박은서가 5일 서울 잠정체육관에서 열린 2022~23시즌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GS칼텍스와 경기에서 스파이크를 때리고 있다. 시페퍼스는 이날 세트스코어 0-3(14-25 22-25 16-25)으로 첫 아웃 패배를 당하며 3연패 늪에 빠졌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창단 첫 자력 5연승 쾌거

## 2023 프로야구 시범경기 내달 13일 개막

KIA, 대전서 한화와 2연전

2023시즌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오는 3월 13일 개막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3일 2023년 KBO리그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시범경기는 오는 3월13일부터 28일까지 각 팀당 14경기씩, 총 70경기가 치러진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대전(KIA-한화), 사직(두산-롯데), 대구(SSG-삼성), 창

원(LG-NC), 고척(KT-키움) 등 5개 구장에서 열린다.

KIA는 대전서 한화와 개막 2연전을 마친 뒤 고척서 키움과 2경기(15-16일)를 치르고 광주로 돌아와 두산(18-19일), LG(20-21일), SSG(23-24일), NC(25-26일)와 각각 2연전을 벌인다. 이어 부산 사직구장서 롯데와 2경기(27-28일)를 갖는다. 시범경기는 전 경기 오후 1시에 열린다.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고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최동환 기자

경남개발공사 22-20 제압  
개막8경기 연속 무패행진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창단 첫 자력 5연승과 함께 개막 후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선두를 고수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5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첫 경기에서 경남개발공사를 28-26으로 이겼다.

광주도시공사는 5연승과 함께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7승1패, 승점 15점으로 리그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번 5연승은 창단 후 자력으로 일군 첫

최다연승 기록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3월 4일 부산시설공단전(21-18승)부터 3월 18일 컬러풀대구전(32-19승)까지 5연승을 거뒀다. 하지만 3월13일 삼척시청이 코로나19로 경기 출전을 포기해 몰수승을 거둔 1경기가 포함됐다.

광주도시공사 골키퍼 손민지와 박조은의 활약이 빛났다. 손민지는 전반을 책임지며 상대 17개의 슈트 중 7개(방어율 53.9%)를, 박조은은 후반에 투입돼 21개의 슈트 중 10개(47.6%)를 각각 막아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손민지는 이날 전반 4분 상대 최지혜의 7m 슈트를 막아내며 역대 2번째 1600세이브를 달성했다.

에이스 강경민은 8골 4도움으로 승리

에 기여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4주 만에 코트에 복귀한 신인 김수민은 5골로 경기 MVP로 선정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강경민의 속공 플레이와 골키퍼 손민지의 선방쇼를 앞세워 12-9, 3점차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들어 김지현, 정현희, 김수민의 득점포가 살아나고 골키퍼 박조은의 잇따른 선방에 힘입어 중반까지 3-5점 차로 앞서나갔다. 19-15상황 이후 상대의 거센 추격에 20-19, 1점 차로 쫓긴 광주도시공사는 종료 1분여를 앞두고 김수민의 원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고, 강경민의 9m 던지기 득점으로 2점 차 승리를 지켰다. 최동환 기자